천리외국어학교 조선어교육에서 보는 조선포교의 의의

김부성 (덴리대학)

1. 들어가는 말

천리외국어학교는 천리교 2대 진주 나카야마 쇼젠에 의해 다이쇼14년(1925) 2월 17일에 설립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창설자인 나카야마 쇼젠이 해외 포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천리외국어학교를 창설한 것의 의의를 밝히고 일본 종교 중 유일했던 천리교의 조선어 교육에 주목하면서 천리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육에서 이어진 조선 포교의 의의를 파고 들어서 논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천리교의 조선 포교 구제관의 보편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천리외국어학교 설립배경

천리교 해외 포교는 당시 브라질, 페루, 하와이, 한국 등 세계 각지로 건너간 일본인 이민과 함께 메이지 시대부터 이루어졌다. 초기 이주자들은 상인이나 기술자가 많았고, 그런 일본인 이주자들을 해외 포교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 시기를 '개인적 해외 포교' 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관해서는 메이지 26년 부산에 밀항하여 포교를 한 포교사 사토미 한지로에 의해 대표된다. 여기서 교파 신도의 일파였던 천리교 포교사들이 밀항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은 일본 당국에 의한 식민지 종교 정책에 차별적인 취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불교나 일본 기독교와 같은 기성 종교의 활동은 적극 지원했지만, 천리교의 활동에 관해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의 문명화(혹은 근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식민지를 추진해 가는 일본 정부에 있어서 미신 집단으로 취급되었던 천리교의 해외 활동을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메이지43년(1910)에는 한일 합병이 있어, 해외 포교의 제2기라 할 수 있는 '식민지 포교' 시대를 맞이한다. 이어 메이지 45년(1912), 신도, 불교, 기독교에 의한 '삼교회동'이라는 협의회가 열려 러일전쟁 이후 국민의 사상을 통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교화운동'이 국내에서 널리 이루어진다. 천리교와 같은 민중종교도 국가의 정책에 따르는 형태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다이쇼8년(1919) 3월 1일 조선 경성에서 만세 사건이 전개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0일 조선 포교관리소 내에 조선 강습소가 개설되었다.

한편,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문화통치' 추진에 따른 정세에 따라 천리교 내 신앙심에 불타는 청년들은 "일본인들이 조선인에 대한 경시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에 대한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 비판적인 움직임에 천리교가 조선인의 일본화를 촉구하는 종교가 되어서는 조선 포교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한국 교인들도 공명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이쇼15년(1926) 천리교 조선 강습소 주임으로 부임한 마키노 에이이치가 천리교 기관지가 일본어로 발간되는 것에 대해 한국어 발간을 결심하고 그 해 7월부터 모든 기관지의 언어를 한국어로 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한국 내 포교 활동이 한국어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개혁파 포교사들의 주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아가 천

리교 신앙과 식민지 포교에 대한 생각 속에서 고민하던 젊은 포교사들이 일본 정부의 식민지 언어 정책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천리교는 해외 포교 활동에서 중요한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 적어도, 다이쇼14년(1925) 천리외국어학교의 설립과 깊은 관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바로 이 '조선어운동'에서 천리교의 독자적인 '포교성'이 생겨나는 것이다.

3. 잡지 "금강"과 조선포교의 구체화

나카야마 쇼젠은 조선어 교육을 가장 중요시하여 조선어부를 개설하였으나, 같은 시기의 도쿄외국어학교에서는 조선어부가 폐지되었다. 오사카 외국어학교에서는 개교 때부터 조선어부가 개설되지 않았다. 당시 일본의 조선어 교육에 대해 '조선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방언이기 때문에 조선어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문부성이나 교육계에서는 극히 일반적이었다. 그런 배경 때문에 일본에서는 조선어 교육은 세계2차대전이 끝나고서야 재개된다. 그러나 나카야마 쇼젠은 조선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한 나라의 국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아침에 변화해서는 안된다. 조선어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것은 미래나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반도 사람들을 구제하는 천리교 포교사는 조선어를 구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창립자의 생각이었다. 즉, 한국이 일본과 병합하더라도 한국은 조선민족의 나라이며 조선어를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조선어를 이용한 해외 포교의 형태는 적어도 나카야마 쇼젠의 교육신념이었다.

그러나, 실제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의 부족이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참고가 되는 자료를 소개한다. 잡지 '금강'이다.

잡지 '금강'이란 조선어부 학생조직으로 형성된 '금강회'에 의해 편찬된 기관지였다. 여기서 금강회는 조선어부 재학생과 졸업생(한반도의 포교사)을 연결하는 조직이었다. 또한 잡지 '금강'의 내용에서 '천리외국어학교 금강회회칙'이 기록되어 있으며, '본회는 상호간의 친목과 신앙 향상, 어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쓰여져 있다. 즉, 조선어 연구회와 발간을 위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잡지 '금강'은 현재 창간호와 제3호가 '금강1.3호'로 명명되어 한 권으로 천리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창간호는 쇼와7년 9월 1일에 발행되었고, 제3호는 쇼와9년 12월 15일에 발행되었다. 따라서 잡지 '금강'은 쇼와7년부터 발행되고 있으며 매년 1호가 편집되었다. 그러나, 현재 창간호와 3호만이 보존되어 있을 뿐, 2호를 비롯하여 3호 이후의 출판물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국내 상황과 한반도 정세를 미루어 볼 때 그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창간호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으며, 전반부에는 천리교단 저명인사의 문서와 교리의 조선어 번역본이 실려 있다. 이어서 후반부에는 일본어로 된 문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전반부의 조선어 번역본과 후반부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후반부는 문부성으로부터의 감독, 검열에 걸리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내용으로는 천리교의 교리가 녹아든 수필 문학이었다. 그러면서도 잡지 '금강'제2호는 발간되었음은 확실하나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다.

제3호는 위원장이었던 기타무라 시치고산치를 중심으로 1934년12월15일 발간되었다. 제3호는 창간호와는 달리 표지부터 목차까지 컬러풀한 것이 특징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게재된 황의동의 '훈민정음'이다. 원래 훈민정음은 한글 문자의 근간이 되는 책으로 국민에게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조선4대 임금, 세종이 직접 지은 한글이 창시된 최초의 이름이기도 했다.

한편, 1935년부터 천리외국어학교 내에서 ‘조선어 교과서’의 제작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한반도에서 그 모습이 말소된 ‘훈민정음’이 일본 내에서 연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어 흥미롭다. 훈민정음은 당시 조선왕조 4대 왕이 창시한 문자가 아니라는 억측이 퍼지면서 ‘조선어 교육 금지 시대’에 있어서는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잡지 ‘금강3호’는 황의동이 훈민정음의 창제자가 조선 왕조 4대 임금 세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잡지 ‘금강’을 통해 천리외국어학교 금강회(한반도 포교사모임)가 올바른 조선어로 천리교의 가르침을 번역할 목적으로 조선어를 연구하였으며, 당시 조선포교의 구체화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쇼와9년에 실시된 수학여행을 기록한 ‘바다를 넘어’에는 쇼와9년 조선어부 학생조직 ‘금강회’의 위원장이었던 기타무라 시치고산치가 집필한 ‘조선의 종교과 사회사업’이라는 제목의 보고 수필이 실려 있다. 또한 ‘본교의 전도, 포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천리교조선포교관리소에 있는 천리교교의강습소와 교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세워진 낙성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천리여아학원이다’ 라는 내용에 의하여 대구에 ‘동경회’라는 천리교 조직이 있고, 그 동경회에서 조선의 포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동경여학원’이 설치되어 조선 여성이 그곳에서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봉사를 목적으로 지어진 천리여아학원도 소개되어 있다. 천리교는 한일합방 이후 격변하는 조선사회에서 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4. 나가는 말

한반도에서 전개된 천리교의 포교 활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이루어진 정치적 전체주의(제국주의)에 시선을 두면서 끊임없이 종교적 다원성의 관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당시 종교들은 저마다의 세계관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유한 신앙에 기초한 종교적 세계관은 변질되었고, 일본종교의 구제관은 정부 당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충돌하지 않는 형태로 변용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다른 종교 병존은 허용되었다. 즉, 일본 종교에서의 다원성 관용이 본래의 종교적 맥락에서 의의를 부여하지 못하고 당시의 정치적 제국주의에 깊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천리외국어학교는 ‘타민족의 이해’와 ‘타민족의 구제’를 위해 설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어부를 개설하고 조선민족을 구제하기 위해 조선어를 구사하는 해외 포교사를 육성하는 학교를 설립한 것은 일본 종교계에서도 천리교가 유일하였다. 조선민족을 이해하기 위해 천리교 참고관 천리도서관을 설치하고 제국주의에 저항한 것은 나카야마 쇼젠의 교육이념 그 자체였다.

조선어부의 ‘금강회’가 ‘훈민정음’을 바탕으로 천리교의 교의를 조선어로 번역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활발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의 상황에 주목하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그것은 학생들의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적 실천이었다. 조선 민족을 구제하고자 하는 순수한 정성에 감명받은 조선사람들은 조선의 포교사가 되어 졸업생들과 함께 한반도 포교활동에 힘썼다. 경성에 있던 천리교 조선강습소에서는 조선어 교의서를 이용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아 조선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조선어 교육은 조선총독부에 대한 반역 행위였음을 감안하면 천리교의 활동이 그만큼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의 천리교 포교사들이 사회적 기부활동을 통해 조선사회에 기여한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한반도의 신앙인들이 세계2차대전 이후에도 다수 그대로 한국에 존속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또 천리교가 한반도에 존속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조선어로 번역된 교의서가 잔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리교는 당초부터 조선사람들의 구제를 목표로 하였으나 다른 일본종교의 해외포교와 비교 검토할 때 그 해외포교의 구체적인 활동은 조선사람들에게 큰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리교의 구제관을 조선어 교육에 접목시키는 교육은 천리교만의 해외 포교라는 개념을 자신들의 구제관을 토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천리교의 독자적인 해외 포교가 천리외국어학교의 조선어 교육과 결부시켜 조선 포교가 구체화 된 점은 특히 주목할 점일 것이다. 즉 천리교 구제관의 보편성은 바로 조선어 교육을 통해 조선민족 구제를 목적으로 실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